

# “꿀찌 파이팅”...시페퍼스 마지막 홈경기 ‘열띤 응원’

도로공사전 1500여명 찾아  
목발짚고 휠체어 타고 응원  
패배에도 “내년에 또 올게요”  
이한비 “팬들의 응원 큰 힘”  
선수들 사인회 아쉬움 나뉘

“마지막 홈경기 화끈하게 불태우려고 왔습니다.”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가 열린 지난 14일 오후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 오후 7시 경기 시간이 가까워지자 길게 줄서서 입장하려는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AI페퍼스의 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응원하러 온 1500여명의 광주 배구팬들은 한손에 구단 이름이 적힌 응원 부채를 들고 한껏 흔들며 관람석을 메웠다.  
광주 배구 팬들은 이날 시즌 마지막 홈경기이자 화이트데이를 맞아 AI페퍼스 구단이 준비한 사랑과 사인부를 받고 즐거워하며 홈 마지막 경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정현(32·여)씨는 “오늘 마지막 홈경기에 기대가 많다”며 “우리 구단이 도로공



지난1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2022-2023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한국도로공사와 시즌 마지막 홈경기가 열렸다. 경기가 끝나고 선수단이 팬들에게 사인을 전달하고 있다.

사에 강만만큼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화정동에서 10살배기 아들과 함께 온 김량구(45)씨는 다친 다리를 끌고 오는 부상투혼을 발휘했다. 김씨는 “최근 다리를 다쳐 아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 좋은 추억을 쌓고싶어 함께 구경하러 왔다”며 “은김에 우리 고장의 구단이 꼭 이겼으면 좋겠다.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들 김현준(10)군도 “아빠, 엄마와 함께 와서 좋다. 배구는 잘 모르지만 재밌을 것 같다. 받은 사랑은 응원하면서 먹을 예정”이라며 웃었다.  
다음 시즌에는 ‘신생구단’ 딱지를 떼길 바라는 커플 팬도 있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페퍼스를 응원하러 왔다는 김민수(30)씨는 “구단이 처음 생길때부터 팬이었다. 매년 보러오는데 이제는 신생구단이라는 수식어를 벗어날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새로운 감독도 온다니 기대가 많이 된다. 응원하는 팀이 잘하길 바라는 건 모든 팬의 마음이다”고 했다.  
AI페퍼스는 지난 17일 아현 김 감독을 선임했다. 아현 김 감독은 2023-2024시즌부터 공식적으로 감독직을 수행한다.  
구장 한켠에서 휠체어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는 장애인 관람객도 눈에 띄었다. 최호석(55)씨는 “모처럼만에 웃는다. 응

원단장의 박수소리로 즐겁고, 시민들의 함성도 활기차 덩달아 힘을 얻는다”며 “장애인 전용석도 있고, 좌석까지 오는데 불편함이 없었다. 구단의 배려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선수가 없어서 경기 내용은 실망스럽지만, 응원하는 맛이 있어 즐겁다. 다음 시즌에도 또 올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는 AI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에 0-3(13-25, 18-25, 11-25)으로 졌지만, 관중석 곳곳에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로 가득찼다.  
AI페퍼스 선수들은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투지 넘친 플레이로 화답했고, 경기 후 체육관 안에서 사인회도 마련했다.  
사인 받는 팬들은 선수들에게 “내년에도 꼭 다시 올게요. 개막전에서 다시봐요. 응원합니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선수들도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악수를 하는 등 성원에 화답했다.  
AI페퍼스 주장 이한비는 “마지막 홈경기에서 승리를 선사하지 못해 아쉽지만 시즌 내내 많은 응원을 보내준 광주 팬들 덕분에 행복했고 큰 힘이 됐다”며 “다음 시즌에는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 “스피드 배구·이기는 경기로 봄 배구가겠다”

아현 김 AI 페퍼스 신임 감독  
“선수단 수비 능력 긍정 평가  
공격 결정력·FA 영입 필요”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배구단 ‘제2대 사령탑’ 아현 김 신임 감독이 2023-2024 시즌 ‘스피드 배구, 이기는 경기’를 약속했다.  
아현 김 감독은 지난 14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와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6라운드 경기에 앞서 가진 지역미디어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오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다음 시즌) 첫 경기를 아주 기대하고 있다”며 “광주를 위해

페퍼스를 위해 열심히 할 준비를 마쳤다”고 자신했다.  
아현 김 감독은 페퍼스의 수비 능력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빠른 플레이를 펼칠 것을 예고했다.  
그는 “저희 팀이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다. 공이 땅에 떨어지기 전까지 따라가는 열정이 있는 팀”이라며 “트랜지션(상대 공격을 받아내 공격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빠르게 하고 후속 플레이를 빠르게 가져가겠다. 이를 팀 구성원 모두 이해해야 해 비시즌 간 훈련해 봐야겠지만 그동안 제가 지도한 팀은 모두 이 스타일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얇은 탭스로 인한 부상자 속출 문제는 데이터 배구로 극복한다. AI페퍼스는 현

재 지민경과 박은서, 구슬, 하혜진, 염어령이 부상으로 이탈해있다.  
아현 김 감독은 “부상자가 많다 보니 릴리를 끝낼 결정력이 없다. 시즌이 끝나면 휴식과 회복을 가장 우선시하고 이후 훈련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공격 시스템을 활용할지 결정하겠다”며 “체력 훈련에도 데이터를 적용할 것이고 이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배구를 잘하기 위한 훈련이다. 시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우리 프로그램을 타 구단에서도 참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격을 책임질 수 있는 새 외국인 선수와 FA 영입에 대한 바람도 드러냈다. 이번 시즌 AI 페퍼스의 최대 약점으로는 높이가 지적돼왔다. FA 시장에는 최대어



아현 김 감독  
김영을 포함 김수지, 김희진, 문정원, 박정아, 배유나, 전세안, 정대영, 채선아, 한송이, 황민경, 황연주 등이 나올 전망이

다. 팀 에이스인 이한비 역시 FA 예정자로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는 “결정력이 있고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아주 중요하다. 여섯 자리 로테이션 어디에 들어가도 위협적인 선수가 필요하다”며 “아포짓 스파이커에 외국인 선수가 필요하고 센터와 아웃사이드 히터도 필요하다. 백업 멤버도 두터웠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내년 시즌 이기는 배구로 봄 배구 진출 욕심도 드러냈다.  
아현 김 감독은 “당연히 봄 배구를 하고 싶고 리그에 있는 누구나 같은 답을 할 것”이라며 “저희는 한 경기 한 경기 이기는 법을 알아가야 하고 저는 팀을 변화시키고 봄 배구를 하기 위해 이 팀에 왔다. 리그 경기들을 보면서 강팀들의 특징을 공부하고 조각을 맞춰가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 광주시체육회 민선 2기 집행부 공식 출범

신임 사무처장에 김영삼 씨

광주시체육회 민선 2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5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전갑수 회장 체제의 민선 2기 집행부를 구성했다.  
민선 2기 집행부는 부회장 9명, 이사 33명 등 총 42명으로 선임됐다.  
신임 사무처장에는 김영삼(사진) 광주 시소프트테니스협회 이사가 임명됐다. 김영삼 신임 사무처장은 대통령직속 자치분권 국민소통상임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고,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김영삼 사무처장은 “전갑수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민선 2기 체육회가 순항하고



광주체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며 “오직 시민과 선수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임 임원 임명장 수여 △시체육회 일반현황 보고 △제104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과 보고 △종목단체 임원인준 승인 보고 △각종 규정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농부가 봄을 맞아 씨앗을 뿌려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맺듯이 민선 2기 시대에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 KIA, 키움 꺾고 시범경기 2연승

김도영 선제 솔로포·적시타  
최지민·전상현 등 불펜 호투



KIA 타이거즈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시범경기 2연승을 달렸다. 김도영의 2타점 맹활약과 불펜진의 무실점 호투에 힘입은 승리다.  
KIA는 1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의 2023 KBO 시범경기 3차전에서 6-2 역전승을 거뒀다. KIA는 이날 승리로 시범경기 2승 1패를 기록했다.  
KIA 선발 손앤더슨(사진)은 3.2이닝 2피안타 1탈삼진 2실점(비자책점)을 기록했다. 60개를 던지며 위력적인 구위를 선보였으나 볼넷 3개를 허용하는 등 제구에 어려움을 겪으며 기대에 못미치는 투구를 펼쳤다. KIA 중간계투진은 전날에 이어 호투를 이어갔다. 윤중현(0.1이닝)

-송후섭(0.1이닝)-최지민(1.2이닝)-전상현(1이닝)-곽도규(1이닝)-김승현(1이닝)으로 이어진 불펜진은 모두 무실점으로 막았다.  
KIA 타선은 10안타와 6볼넷을 생산하며 점수를 쌓았다. 이날도 리드오프로 나선 유격수 김도영이 선제 솔로포를 포함 2안타 1볼넷 2타점으로 맹활약했다.  
2번 타자 2루수로 출전한 김선빈은 2타수 2안타 1볼넷을 뽑아내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고 소크라테스와 김호령, 이우성도 타점 생산에 가세했다.  
KIA는 16일 같은 장소에서 치러지는 키움과의 시범경기 4차전에 루키 윤영철을 선발로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한다.  
한규빈 기자